‘핵개인’ 시대, 네트워크로 답하다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지금은 ‘핵개인’의 시대라 한다. 각자는 자신의 화면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파편화된 핵개인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모두가 서로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연기(緣起)의 진실을 다시 드러낸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거대한 연결망 안에 놓여 있다. 문제는 그 연결을 방치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엮어 낼 것인가에 있다.

조계종이 위촉한 SNS 청년 서포터즈는 이 질문에 대한 작은 응답이다. 불자 대학생들이 자신의 시선으로 불교를 해석하고, 뉴미디어 형식으로 표현해 보는 참여형 시도다.

이는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불교를 말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재구성하며 또래와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오늘날 불교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 접촉이 아닌 수동적 이미지의 수용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위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불교의 얼굴을 대신한다.

그렇기에 누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감각으로 불교를 표현하느냐는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다. 청년 서포터

조계종 서포터즈, 파편화된 시대 응답
불교 표현 주도권 청년에 돌리는 시도
능동적 신행과 네트워크 확장 이끌어

즈는 그 주도권을 청년 스스로에게 돌려주는 시도다.

짧은 영상 하나, 카드뉴스 한 장, 한 줄의 문장은 단순한 게시물이 아니다. 그것은 연결의 매개다. 같은 세대의 언어로 전해질 때 불교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이 된다.

참여형 구조는 소비를 넘어선다. 스스로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신행은 능동이 되고, 네트워크는 확장된다.

종단 차원에서도 연결의 구조는 중요하다. 각 사찰과 각 부서, 각 포교 현장이 따로 움직이면 에너지는 분산된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면 시너지가 생긴다.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채널로 이어지고, 하나의 활동이 다양한 세대로 확산될 때 영향력은 배가된다. 뉴미디어는 그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다.

청년 SNS 서포터즈는 그 첫 매듭이다. 작은 규모일지라도, 이 경험은 향후 더 많은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대학과 지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구조가 형성될 때 불교는 고립되지 않는다. 연기의 가르침은 교리로 머무르지 않고, 관계망 속에서 실천된다.

핵개인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설계다. 불교가 가진 연기의 지혜를 오늘의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는 일, 그것이 청년 서포터즈가 갖는 상징성이다. 포교의 미래는 단일 채널의 성과에 있지 않다.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생겨나는 시너지에 있다. 지금은 그 연결을 시작할 때다.

우리 사회의 시민과 보살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에서 시민에 관한 이야기는 늘 이상과 현실 사이 어디쯤에서 머물곤 한다. 이상적으로 시민은 자신의 삶과 이 사회의 주인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온다. 우리 역사에서 시민은 3·1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민주공화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본격 등장했는데, 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한 세기를 넘기고도 온전히 자리 잡지는 못한 셈이다.

최근 내란 사태는 민주화 과정과 시민교육의 지난한 역사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게 됐다고 자부했던 우리 민주화 수준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주저앉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몸으로 국회 앞 군인들을 막아 낸 시민들이 있었고, 그 외침에 부응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태는 상식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개인 방송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거칠고 왜곡된 음성과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일상화되기도 했다. 더 악화하면 힘들게 이룩한 민주적 시민사회가 그런 자들의 목소리만

최근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 후퇴돼
상식 넘은 극단적 목소리도 이어져
시민사회 위기 대안으로 보살 떠올려야

넘쳐 나는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인 시민과 시민사회는 그 뿌리를 서구의 고대에 두고 있다. 참여를 강조하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전통과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로마의 공화정이 혼합한 형태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민주공화국이란 설명이 대표적이다. 시민사회에서 자유를 전제로 하는 참여와 법을 전제로 하는 평등의 가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민사회에는 그런 수입된 시민상과 함께 백성이 곧 하늘이라고 외치면서 등장한 동학(東學) 전통의 시민상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능하게 한 3·1운동을 이끈 주축이 바로 이 동학에 뿌리를 둔 천도교였고, 동학은 다시 불교와 유교, 도교를 포용하면서 새 시대를 여는 개벽을 꿈꾼 사상이자 운동이었다.

서구의 시민 개념이 근대를 거치면서 상실한 것은 시민 개인의 수행(修行)이었다. 민주공화정이 시민의 정치적 능력과 함께 덕성을 필수적으로 요청함에도, 시민교육에서도 덕성은 각자의 몫으로 돌려지거나 도덕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뒤로 물러났다.

동양 전통 중에서도 도교는 지나치게 세속화됐고, 유교 또한 학문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수양론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다. 불교만이 수행을 통한 지혜 추구와 보시를 통한 자비 추구라는 두 날개를 지켜 내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남았다.

이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인간상이 바로 보살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살을 함께 떠올려야 하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규명할 수 있을 새로운 한국 시민(K-시민)을 세상에 선보이며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붕괴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社 說

바다 아래 이름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일본 조세이탄광 해저 갱도에서 또 한 점의 유골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2월 6일 관음종이 현지에서 봉행한 희생자 천도재 도중 전해진 소식이었다. 80여 년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있던 이름 없는 희생자가 다시 햇빛을 마주한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민간의 끈질긴 노력과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다.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유해 수습에 참여했던 대만인 잠수사 웨이 수 씨가 이튿날 작업 중 의식을 잃고 끝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국적을 넘어 인류애로 바다에 뛰어든 이의 희생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희생자를 찾는 길 위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한 현실은, 현재의 유해 수습 방식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유해 수습, 시민·종교 헌신만으론 한계
한일 정부 조사단 구성해 책임 다해야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1942년 2월 3일 발생해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다. 특히 조선인 노동자가 다수였던 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한다. 그럼에도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희생자들은 바다 아래 방치돼 있었다.

이 긴 침묵을 깨운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었다. 일본 시민단체 ‘재기는회’가 중심이 되어 갱구를 찾아 잠수 조사를 추진하고, 관음종은 2017년부터 현지 위령재를 봉행하며 유해 수습 활동을 후원해 왔다. 지난해 8월 인골 4점이 발견된 데 이어 올해 추가 유골이 수습된 것도 이러한 민간의 헌신 덕분이다. 현대불교신문과 관음종이 업무협약을 맺고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이제 분명해졌다. 해저 갱도에서의 유해 수습은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 장비,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다. 낮은 수온과 시야 확보의 어려움,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에서의 작업은 민간의 열정과 후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웨이 수 잠수사의 죽음은 더 이상의 방관이 또 다른 희생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일본 정부도 2월 11일 “한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희생자의 존엄을 지킬 책무가 있다. 일본 정부 또한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양국이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해저 구조 전문가와 첨단 장비를 투입해 안전한 발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조세이탄광의 문제는 과거사 갈등의 연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인도주의의 문제다. 바다 아래 묻힌 유해 한 점에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기억,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 담겨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민간의 헌신 위에 국가의 책임이 더해질 때, 비로소 역사의 상처는 봉합될 수 있다. 바다 아래 남겨진 이름들을 끝까지 찾아 고향의 품으로 모시는 일, 그것이 한일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2월 1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2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2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